근대회계의 발전과정과 현대회계 탄생의 역사적 배경†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ccounting in 1930s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Modern Accounting)

고 성 효*
(Seong-hyo Ko)

목 차

Ⅰ. 서 론
Ⅱ. 근대회계의 발전과정
Ⅲ. 현대회계 탄생의 역사적 배경
Ⅳ. 결 론

Ⅰ. 서 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계개념은 인류역사의 생성 및 발전과 더불어 그 근원을 갖고 있으며, 시대적 사회경제 환경의 사고에 적합하게 변천하여 왔다. 회계개념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 발전과정 이해해야 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회계개념은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형성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회계학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회계학사 통찰이 필요하다. 즉 과거의 회계사고, 실무, 제도 등 그 기원과 성립, 발전, 논쟁(학설대립) 등에 대한 진화연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념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미래변화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Edwards는 경제발전과 회계발전의 시기를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이정호, 2002, p.20). 농업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이전(BC 4000- AD 1000)으로 고대회계, 상업혁명기인 상업자본주의(AD 1000-1750)시기 중세회계, 산업혁명기인 산업자본주의(AD 1760-1930)시대를 근대회계, 그리고 주식회사의 제도화과정에서 현재까지 자본시장의 발전과정에서 자

† 2009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교수

본주의 경제사회가 꽃을 피운 시기 즉 금융자본주의(AD 1930-현재)시대인 현대회계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미래사회는 기술, 정보, 지식 등 경제적 가치를 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미래 경제사회에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자원배분, 즉 자본의 수요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재무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본시장시스템의 토대가 되며, 거래비용과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고 재무정보의 해독능력 확산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회계상 과제가 될 것이다.

M. Weber는 경제사(Wirtschaftsgeschichte, 1924)에서 근대자본주의의 성립과 발전에 따른 오늘의 경제제도는 부기의 보급에 의해 고도로 합리화 되었다고 한다. 자본주의 경제사는 합리주의 정신에 의해 큰 성과를 이루었고 현대 경제사회는 합리주의적 계산에 기초를 둔 합리주의 역사이다(조기준, 1982). 중세 유럽의 상업혁명과정에서 근대자본주의 성립과 복식부기의 탄생 및 전파가 되었다. 18세기 이후 산업혁명과정에서 근대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주식회사제도가 제도화되기까지 복식부기에 의한 정확한 계산도구가 근대자본주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회계발전은 상호의존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경제역사의 발전과정에서 그 맥을 같이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회계가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근대자본주의의 성립과 발전과정에서 복식부기의 탄생, 전파보급, 체계화에 이르는 회계발전과정과 현대회계의 탄생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회계의 탄생과정에 이르기까지 회계사고, 회계제도, 및 회계실무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현대회계를 재평가하고 미래 회계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근대회계의 발전과정

2.1 고대회계

회계의 기원은 인류기록의 시작에서 출발했다. 인류의 기록은 BC 4000년 이전부터 고대 오리엔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기억수단으로 시작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세계의 최고 오래된 상업서류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기원전 3500년의 것이나, 기장은 기원전 4000년경부터 실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축적에 따른 자산의 물리적 보호와 그 자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탁

책임회계를 창안하였다. 대리인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조사할 필요성에서 나타난 내부관리는 모든 고대부기제도의 중요한 특징이다. 고대사회에서 사용된 기장, 관리, 검증 등 제 문제는 많은 점에서 현대회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이정호, 1985, p.3-5). 따라서 고대사회의 경제활동 기록(왕조의 재산관리, 상업활동, 계약관계 등)은 재산관리의 위임자가 대리인의 성실성과 신뢰성에 대한 관리능력과 부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였고, 대리인은 자기 변호수단으로 회계기록을 통한 증거자료의 필요성에 따라 수탁책임회계(Stewardship Accounting)가 생성된 것이다.

기원전 600년까지 고대회계의 기록은 물량단위로 이루어졌으며, 그 목적은 위임자의 재산변동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스와 로마시대에 발전된 재무기록 유지와 매우 복잡한 회계 및 감사과정은 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었다. 위임자의 주요 관심은 대리인에게 위탁된 자산의 보호에 있었으며, 위임해소보고서는 그 목적에 매우 적합하게 사용되었다(이정호, 2002, p.79). 따라서 중세 복식부기 탄생 이전의 고대부기는 단식부기 형태로 그 목적 및 방법은 유사 이래 5000년 동안 큰 변화는 없었다.

2.2. 중세회계

복식부기가 탄생되기까지 고대사회에서 중세 유럽 제국의 회계는 단식부기 형태로 통일된 회계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다. 정부나 종교단체 등의 수지회계는 재산관리 및 수지보고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대리인회계 형태이다. 이러한 대리인회계는 단식부기 형태이지만, 중세에서 근대까지 통일된 회계시스템으로 발전시켜온 영국 장원제도의 장원회계는 주목할 만한 회계로 볼 수 있다.

2.2.1. 장원회계

로마제국의 붕괴 이후, 10-13세기 유럽의 경제사회적 구조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봉건사회 전성기였고, 11세기 이후 봉건주의 사회가 붕괴되면서 소도시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2-13세기 전후 봉건사회 전환기에 근대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개인주의에 의한 사유재산제도가 확대된다. 장원제도 및 로마교회 쇠퇴 및 해체과정에서 자치도시 성장(왕과 상업자본 제휴)과 더불어 상업발전이 시작되었다. 또한 강한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국가를 형성하게 되면서 16세기 초-18세기 말 절대주의시대로 관료, 상비군, 상공시민층과 제휴에 의한 중상주의,

식민지 쟁탈, 신항로개척으로 해상무역이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상업혁명의 전성기를 누리게 됨은 물론 개인기업에서 조합 및 회사형태 상업조직으로 더욱 발전하게 된다.

복식부기가 탄생되기까지 정부나 교회의 수지회계는 재산관리 및 수지보고를 중심으로 대리인회계 형태이다. 중세의 대리인회계는 주목할 만한 것으로 영국 장원제도의 장원회계를 들 수 있다. 장원제도에서 중요한 회계문제는 영주와 대리인 사이에 수직적인 의사전달과 검증에 관한 문제였다. 대리인회계(장원회계)는 수탁자 입장에서 자기보호 및 입증수단(보수주의)으로, 위탁자 입장에서 수탁자의 성실성과 신뢰성, 효율성 제고(내부통제 및 감사는 베니스 복식부기보다 우수하였다고 함)를 목적으로 한 수탁책임이행보고서(charge and discharge statement)이다. 영국에서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표준화 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 보고서는 13세기에 옥스포드대에서 장원감사, 표준화된 보고서, 징세액 기록 등 교육이 이루어 졌다. 장원회계에서는 경제실체, 계속성, 회계책임, 보수주의 원칙 등 회계개념이 존재하고, 오늘날의 수탁책임 및 보수주의원칙의 기초가 되었다.

2.2.2. 복식부기의 생성과 체계화

M. Weber(조기준, 1982)에 의하면, 최초의 상업은 이종족간 농업, 가내공업의 부업(계절적, 행상, 소매상)으로 특화된 잉여생산물의 교환유통에서 영주상업 또는 전업화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중세 개인상인의 상거래가 성행하면서 근거래 무역이 촉진되고, 개인상인의 부의 축적과 더불어 자본과 항해기술을 접목한 원거리 지중해 모험항해무역으로 발전되면서 개인기업에서 조합기업 형태로 상업조직이 발전하게 되었다. 항해무역으로 거리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점경영, 신용제도, 위탁거래 등이 성행했다. 상업조직이 개인에서 조합형태(Partnership)로 발전되면서 이익분배, 실체, 투자자 보호, 자본과 이익의 구분 등 복잡한 회계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복식부기의 기원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단식부기로 해결할 수 없었던 상업활동의 복잡성과 관리적 필요에 따라 12-13세기 이탈리아 북부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정호, 1989, p.44). 11-14세기는 이태리 중세도시의 상업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이다. 당시 지중해무역을 중심으로 상업조직이 발전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배경이 마련된 시기이다. 13세기 중세사회를 주도했던 장원, 로마카톨릭 교회의 쇠퇴 및 해체로 새로운 중앙집권국가는 국왕과 상업자본의 제휴에 의해 활발한 상품교환 및 생산자극에 의해 상업혁명이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또한 십자군시대(1096-1291년, 7차례 원정)를 거쳐 북부이

태리 지중해무역이 크게 발흥했다. 13-14세기경 이태리 제노아의 시정기록, 베니스, 프로렌스 중세상인(상업금융 독점)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상업의 발달과정에서 공동경영에 대한 정확한 계산의 필요성, 상업의 조직화와 합리성, 정확한 결산목적 등에 따라 복식부기가 생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복식부기 방법은 영업상 모든 지식과 경험이 영업비밀로 자손에 전수되고 대부분 수기기록으로 서술되어 그 상가의 가족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한다(윤병욱, 1966, p.12).

조합회계는 대리인과 위탁상인의 관리적 필요성, 이익분배(자본과 이익의 구분), 세금 문제, 실체개념(대리관계에 의한 회계책임) 등 회계발달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로마의 아라비아숫자 도입(십자군시대 널리 보급)으로 표시능력 용이, 화폐단위 일반적 사용, 사회적 제도(사유재산 개념도입, 신용제도, 자본축적)의 확립 등 복식부기 발전에 기여했다.

체계적 부기출현의 선행조건(13-14세기)을 보면, 당시 유럽에서 무역량 증대, 생산자본 창출, 신용거래 이용, 화폐사용 등이 일반화되는 시기이다. A. C. Littleton은 복식부기의 출현 선행조건을 기록의 기술(종이발명, 활판인쇄), 산술(아라비아 숫자-인도에서 유래), 사유재산권, 화폐경제(교환수단으로 안정된 화폐제도), 신용(신용거래 확대, 채권 채무 문서기록), 상업활동, 소유자의 자본투자(일반국민에게 재산권 확대, 축적자본 재투자) 7가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복식부기의 체계화 조건으로 상업성과 계속성을 들고 있다.

2.2.3. 복식부기의 보급전파와 근대자본주의의 성립

복식부기의 최초 기술서는 Luca Pacioli(1445-1515년)가 1494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대수, 기하, 비 및 비례총람"을 저술하였는데, 부기서에서 장부는 일기장, 분개장, 원장 순서대로 기록하여 거래 추적이 용이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장부의 검증 및 보관, 복식부기 절차의 기초, 통합성, 대차평균(균형성) 강조하고 있으며, 장부마감 및 결산절차까지 수록하고 있다. 이처럼 복식부기는 정확한 과학성을 갖추어 발전되고 문헌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부기서는 이후 회계실무의 개선, 회계교육(저술 및 번역 전파), 과학적 현대회계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15-16세기 신대륙 대발견시대에 신항로개척과 더불어 상업주도권이 지중해 연안에서 북대서양 연안 서유럽 및 북유럽국가로 이행되면서 상품시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유럽의 상업혁명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상업조직은 개인 및 조합기업 형태에서 주식회사제도로 발전하게 된다. 15세기 말 이탈리아 상업도시가 쇠퇴하고 무역중심지 이동과 더불어 파치올리 부기

서가 유럽 전역으로 번역 전파되면서 대리인회계가 복식부기로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유럽의 상업발전은 근대자본주의가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M. Weber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인간의 수요충족이 합리적 기업활동에 의하여 영리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존재한다고 한다. 합리적 자본주의적 경영은 자본계산에 의한 경영을 말한다. 그것은 복식부기 수단에 의해 수익성을 계산할 수 있고 대차대조표 작성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는 영리경영을 말한다.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1608년 네델란드의 Simon Stevin에 의하여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조기준, 1982, p.293). M. Weber의 근대자본주의 성립에 대한 전제조건은 합리적 자본계산이며, 합리적 자본계산은 모든 대영리기업의 규범이 되었다. 이러한 합리적 자본계산의 전제조건은 ①사유재산(물적 생산수단의 자유 소유), ②시장자유(유통의 불합리한 구속에서 해방), ③합리적 기술(고도의 계산가능성)의 발달, ④합리적 법률(제도) ⑤자유노동시장(합리적 자본계산이 가능) ⑥경제의 상업화를 들고 있다(조기준, 1982, p.294).

W. Sombart는 독일 경제사회학자로 그의 저서 "근대자본주의"에 의하면 역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주의 발전에 복식부기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의 자본주의정신은 영리주의와 경제적 합리주의의 경제원리로 계획성, 합목적성, 계산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고승희, 2006, p.57). 기업가와 기업의 분리 독립은 복식부기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자본주의적 기업 형성에 있어 복식부기의 역할을 높이 평가 하였다(정기숙, 2002, p.100).

2.3. 근대회계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19세기에 유럽 제국 및 미국으로 확대와 더불어 근대사회로 발전시킨 혁명적 사건이다. 또한 산업혁명은 회계 역시 상업부기에서 공업부기가 통합된 근대회계시스템으로 발전시켰고, 산업발전과정에서 주식회사제도가 제도화됨에 따라 자산평가(거액 고정자산 사용)와 이익계산이 중요하게 됨은 물론 일반투자가에 대한 기간보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산업혁명과 주식회사의 제도화는 근대자본주의 발전을 촉진시켰고, 근대회계 발전기는 1930년대 현대회계를 탄생배경이 되는 성숙기였다.

2.3.1. 역사적 배경

중세 이태리에서 시작된 상업발전이 18세기까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이러한 상업혁명은 이탈리아 복식부기 역시 교역확대와 더불어 유럽 전역으로 널리 전파되어 영국의 산

업혁명의 싹을 키우게 된다.

16세기 초에서 18세기 말까지 유럽사회는 봉건주의의 붕괴, 로마 교황권의 쇠퇴하면서 중앙집권국가가 출현되는 시기였다. 상업혁명으로 상업자본은 사회적 지배력을 크게 강화시켰고, 시장이 세계화되면서 모든 유럽국가로 상업자본주의가 확산되었다. 또한 19세기 유럽의 산업혁명은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탈바꿈하고, 산업자본주의가 발전되면서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로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3.2. 산업혁명과 회계의 발전

18세기 인류생활을 크게 변혁시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새로운 기계발명과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생산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그 영향은 경제구조 및 사회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유럽 주요국로 파급되었고, 이는 르네상스 이래 유럽의 근대적 발전을 배경으로 진행된 경제적 발전의 누적된 결과였다(민석홍, 2009, p.262).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발전은 경제제도 및 회계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한 초기제조업에서 시작하여 광업, 제철업, 운송업 등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더불어 회계도 상업부기에서 공업부기와 통합된 회계시스템으로 발전하였고, 공장관리 필요성에 의해 원가회계 및 관리회계가 탄생하였다.

가. 기계발명과 기술혁신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요인은 유럽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정치사회 및 자연환경을 들 수 있다. 17세기 영국의 정치근대화는 권리청원(1628), 청교도혁명(1642-49), 명예혁명(1688) 등 시민혁명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유럽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자연환경 즉 철, 석탄 등 탄광원료가 수송수단이 발달되지 못한 시대에 근거리에서 확보할 수 있었다.

영국 초기 산업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산업은 면직물공업이었다. 기계발명에 의한 기계화와 기술혁신은 대량생산 체제로 바뀌게 된다. 맨체스터를 중심으로 대중의류를 생산하는 면방직(17세기 가내수공업에서 18세기 선대제도), 제니의 방적기(1764) 생산공정 기계화, 수력(1768), 뮬(1779), 역직기(1787년 카트라이트) 등 발전된 기계화로 면사생산은 3-4백배 증가시키는 혁신을 이루었다. 면직물공업의 기계화와 더불어 광업 및 제철공업이 발전되고 석탄과 철이 근대산업의 기초자원으로 지위를 굳혀갔다. 그리고 J. Watt 증기기관(1767), 스티븐슨 기관차(1825), 철도 맨체스터-리버풀(1829), 기선 발명-허드슨

(1807) 등 교통수단의 혁명적인 변화는 대량생산에 필요한 원료 및 생산물 운송을 용이하게 하고 시장을 확대시키게 되어 수요를 크게 창출시켰다. 그리고 일터가 농촌(가내수공업)에서 도시 공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산업도시화가 확대 진행되고 생산조직도 개인 및 조합 형태에서 주식회사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19세기에 들어 영국의 산업혁명은 유럽 제국 및 미국으로 확산되고,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는 산업 및 회계발전 중심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행되기 시작하였다.

나. 근대회계의 발전

산업혁명을 통하여 제조기업이 대규모화되고 기업경영활동이 복잡해지는 기업환경 변화에 의해 회계도 새로운 회계실무가 필요하게 되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화의 확대와 발전으로 공장시설규모가 커지고 공장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여러 지역에 분산된 종속회사의 업무활동의 중앙관리, 복잡한 제조공정의 체계화, 제품종류의 증가, 판매가격을 위한 생산원가의 중요성 등 원가회계 및 관리회계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특히 제조원가 계산에서 재료비, 노무비, 이외 제조간접비 비중이 커지고 복잡한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가 중요하게 되고, 공업부기가 상업부기 계정과 통합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남북전쟁(1861-1865년) 이후 미국은 제2차 산업혁명의 시기이다. 철강공업의 발전과 기술진보(19세기 말엽)는 철강(Carnegie), 석유(Rockfeller), 철도(Vanderbilt), 화학, 기계, 전기, 자동차, 식품업 등 모든 분야에서 대량생산화와 기업규모의 확대로 국제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더불어 회계발전의 중심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혁명을 촉진시켰던 유럽과 미국의 철도산업은 괄목할 만한 발전이 회계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철도산업은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으로 자본과 이익의 구분 및 배당가능이익,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구분, 감가상각 개념 등 현대회계 개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현대경영학은 남북전쟁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조직적 태업을 해결하기 위한 1880년대 Towne, Halsey 등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능률향상운동에서 태동하였다. 이를 모태로 1910년대 작업개선을 위한 Taylor의 과학적관리법에서 체계적인 관리론이 탄생된 것이다. 1920년대 이후 Marshall, Fayol 등에 의해 관리이론을 체계화시켜 나갔다(윤병욱, 1966, p.346). 이들은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였는데, 생산능률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원가 및 관리회계가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산업혁명의 영향은 많은 회계자료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대량생산시스템 출현으로 고정원가 감가상각(대규모 고정자산) 개념, 제조원가의 원가배분 문제, 재고자산 평가 등 새로운 재무회계개념과 더불어 원가계산 및 관리회계 개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다수의 투자가들에 의한 대규모자본 조달은 주식회사의 제도화에 따라 필요한 재무보고 및 회계감사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다. 더불어 부재소유자 등장으로 외부정보이용자에 대한 재무정보 제공문제가 나타났다. 그리고 20세기 초 원가회계 발전으로 표준원가 개념이 나오고 회계실무도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원가기록을 재무회계 계정과 통합시킴으로써 제조기업의 순손익을 산출하는 방법이 개선되었다(남상오, 1979, p.103).

2.3.3. 주식회사제도의 제도화와 회계 및 자본주의의 발전

가. 출현

Weber는 자본주의 발전의 외적 요건을 상업화와 주식회사를 들고 있다. 주식회사의 출(이정호, 1985, p.111)은 역사적으로 오래 동안 생성된 독립실체, 유한책임, 계속성 세 가지 개념으로부터 생성됐다. 독립실체는 중세사회 중요한 조직이었던 교회, 도시, 동업길드(동업조합) 등 영속성을 가진 독립실체로 취급되고 있었다. 각 조직의 재산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며 그 채무도 개인이 책임지지 않았다. 유한책임의 선구는 이탈리아의 익명조합(Commenda Partnership)으로 익명조합원은 그 책임은 출자액에 한정하였다. 기업의 계속성은 소유주의 생명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회계는 채권자 보호와 계속성유지를 위한 보수주의, 이익배당, 자본과 이익 구분 등 중요한 회계문제가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익명조합(Commenda Partnership)이 유한책임회사의 선구적 존재였으며, 15-6세기 합작기업, 규제된 주식회사, 도시의 상사결사에서 상업조직은 금융(이태리), 철물상(오스트리아), 포목상(체코) 등 주식회사와 유사한 조직형태였다. 1407년 이탈리아 San Giorgo 은행(제노아), Ambrosius bank(밀라노)는 지분양도가 자유로워 최초의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으로 보는 설이 있다. 그리고 주식(shares)이라는 개념에 자본주의 정신을 불어넣은 것은 영국인들이라고 한다. 세바스치안 캐봇이 1553년 Company를 만들어 25파운드짜리 증서를 런던 상공인들에게 팔아 6,000파운드를 조달하였다. 이는 투자한 만큼만 책임진다는 아이디어를 활용한 것이 주식회사의 시작이라는 것이다(강남규, 2001, p.76).

최초의 주식회사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진 partnership에서 시작됐다. 1602년 설립된 네델란드 유나이티드 동인도주식회사(United East India Company)는 합작기업의 형태에서 출

발한 주식회사의 선구로 보고 있다. 동인도주식회사는 국가의 특허로 상업상 독점적 특권을 부여받았다. 17세기 초반 네델란드 경제는 유럽에서 가장 왕성했고 선진적이었다. 네델란드 상인들은 은행, 복식부기, 환어음, 주식회사 등 금융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중요 시스템들을 상업경제 기반 위에 올려 놓았다(강남규, 2001, p.34). 16-17세기 초 암스테르담은 유럽의 상업 및 금융중심지였고, 이후 영국 등 주변국가 전파에 기여했다. 이 시기 해상무역기업은 국가와 결탁하여 국가의 식민지 경영을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그 보상대가로 기업에 무역독점권을 부여했다. 예를 들면 Russia co.(목재), Virginia co.(연초), Hudson's Bay(모피), East India Co.(향료) 등이 당시 유명한 회사였다고 한다. 영국의 East India Co.도 1600년 엘리자베스 1세의 칙허를 받아 모험사업에서 시작하여 계속기업으로 발전하였다. 1617년까지 113회 항해를 하였는데, 초기 부분청산 기업형태에서 계속기업인 주식회사로 발전하였다(이정호, 1985, p.114). 이러한 무역항해 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한 다수의 유한책임 투자가가 필요했고, 이들에 대한 정기보고, 회계전문직, 정부개입에 따른 새로운 회계제도 등이 요구되었다.

나. 경제공황과 주식회사의 제도화

M. Weber의 자본주의적 경영의 전제조건은 사유재산, 시장자유, 합리적 기술, 합리적 법률, 자유노동시장, 경제의 상업화 6가지 이외 또 하나의 요건으로 투기(speculation)를 들고 있다. 투기는 재산을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는 유가증권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순간부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투기는 경제대공황을 발생시키는 특징을 갖는다(조기준, 1982, p.303). 1630년대 네델란드 튜립공황은 대투기공황으로 간주되지만, 1720년대 프랑스 John Law Mississipi나 영국의 남해회사(South Sea Co.)의 파산에 의한 유럽의 경제대공황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주식회사 출현 이후 제도화되는 과정까지 주식회사의 파산에 의해 많은 투자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그로 인하여 크고 작은 유럽의 경제공황을 야기했던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17세기 초 주식회사의 출현 이후 주식거래에 대한 체계적 시장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소수 회사에 국한된 소수 부자들만 소유하고 있어 대중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1630년대 네델란드의 튜립공황 이후, 1690년대 보물인양선, 해저탐험회사 주식회사 설립 붐으로 투기의 시대였다. 이는 1687년 뉴잉글랜드호가 침몰 스페인 해적선에서 건져 올린 보물 몫으로 1만%의 배당금을 항해 지원 파트너에 배분했기 때문이다. 이후 영국에선 금융혁명이 지속되고, 1711년 정부채권을 인수하며 South Sea Co.를 설립하여 라틴아메리카 무역독점권을 부여 받았다. 1719년 프랑스 John Law Mississipi Co.도 전쟁 재정문제에 봉착했던 국가

의 국채증권를 인수받아 해외개발지역 상업독점권(루지에나, 인도, 중국)을 갖고 이후 크게 성장한 회사로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1720년 이들 회사의 버블 및 파산이 유럽 경제공황을 야기했다(강남규, 2001).

영국의 남해회사는 대규모 주식을 발행하여 국채를 인수하고 해외무역에서 상업독점권으로 크게 성장했던 회사이다. 남해회사의 파산에 의한 공황은 영국 최초의 주식대투기사건이다. 의회의 조사 결과 회계장부 조작이 발견 되었고, 이에 따라 회계감사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주식투기 방지, 새로운 주식회사 설립규제, 부정방지 등 목적으로 Bubble Act가 제정되었다(이정호, 1985. p.117). 이후 100여년 후 1825년 폐지되기까지 주식회사 설립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19세기 초반 남미 광산개발 붐, 19세기 중반 철도버블 등 산업혁명과정에서 수많은 투기 붐이 있었고, 프랑스 Juglar는 10년 주기(1815, 1825, 1835, 1847년 경기파동) 경제공황이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1929년 세계공황을 계기로 현대회계가 탄생되는 일련의 배경이 된다.

따라서 주식회사 출현 이후 제도화되기까지 주식회사의 파산으로 많은 투자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유럽의 경제공황을 야기했던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 감독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대차대조표 작성 및 결산 등 회계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회사법은 통일적 보고기준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 충족을 위해 제정 및 개정되어 왔다.

19세기를 지배했던 자유방임주의 정치철학은 기업가들에게도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오래 동안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규제제도가 나타난 것이다. 1673년 프랑스 상업조례에서 2년마다 재산목록(B/S)을 작성하도록 한 유한책임조합 규정이 있었다. 영국은 1825년 Bubble Act가 폐지되고 1844년 영국의 회사법이 제정되어 무한책임 조건으로 등기에 의한 법인설립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1861년 독일 상법 및 1862년 영국의 회사법은 1930년까지 투자가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설립규제 및 경영자의 업무수행을 감사하려는 의도로 최소한의 회계보고 및 감사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 주식회사의 제도화와 회계 및 자본주의 발전

19세기 중반 이후 주식회사의 제도화는 제조기업의 발전, 조세제도, 회계전문직 등 출현으로 회계발전에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 회계목적이 수탁책임 평가에서 재무보고로 이행하게 되면서 회계실체, 계속기업, 회계기간구분 등 회계사고가 나타났다. 기업의 독립실체는 소유

주의 채무에 대한 유한책임과 채권자보호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기업의 계속성은 자본유지의 필요성(영구투자)과 취득원가에 의한 자산평가, 이익측정에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감가상각, 대손상각, 배당가능이익 산정(자본유지와 이익잉여금 범위 내) 등 자산과 비용의 구분 및 기간이익 산출을 위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중요하게 되었다.

산업발전과정에서 기업의 조직형태는 대규모 자본조달과 투자가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주식회사가 제도화 되었다. 그리고 증권시장의 발달은 정기재무보고, 감사필 재무제표, 부재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정부개입 및 규제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증권시장은 1773년 런던, 1792년 뉴욕에서 시작되어 주식회사 제도화에 따라 자본시장 발전을 더욱 촉진하게 되고 19세기 후반 미국의 Wall Street는 영국을 능가하게 되었다.

Weber는 자본주의 출현한 곳에 반드시 보다 정확한 복식부기가 따른다고 하였다. 산업혁명은 근대자본주의 발달을 더욱 촉진시켰고 회계의 발달을 가져왔다. 복식부기에 의해 자본과 이익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촉진시켰다. 또한 주식회사제도의 제도화와 더불어 현대 금융자본주의 사회경제제도의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Sombart는 현대자본주의 발전은 과학적 부기의 3가지 중요성을 들고 있다. 즉 산업합리화(기업관리 계량화와 체계화, 자원배분)를 위한 합리적 계산, 자산과 지분 손익(영업활동성과)을 수치로 요약, 인적 소유개념을 추상적 자본개념으로 전환한 기업과 소유주의 분리 문제해결은 대규모 기업성장을 촉진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화과정에서 자산평가(거액 고정자산 사용)와 이익계산이 중요하게 되고, 일반투자가들에 대한 기간보고의 필요성에 따라 회계가 더욱 체계화 됐다. 회계는 경영관리 수단으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계약, 가격결정, 성과평가, 자원배분 의사결정의 기초, 통제 목적 등 현대회계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며, 회계시스템은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시스템으로 급속하게 전환되었다. 더불어 기업의 독립실체, 계속성, 회계기간 구분, 자본개념, 이익측정, 원가계산, 회계감사 등 기초개념들의 본질에 대한 논의와 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근대회계발전은 경영자의 경영계획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을 발전시켰다. 이를 토대로 주식회사의 제도화에 따라 현대 금융자본주의를 탄생시켰고, 새롭게 요구되는 회계실무, 회계제도, 회계이론에 의해 눈부신 회계발전을 이룩했다.

2.3.4. 미국 근대회계의 발전

Wissler는 미국의 산업발전단계를 1776년(독립선언)이전, 1760-1830년(commercial

phase, 1812년 제2차 독립전쟁), 1830-1915년(financial phase, 철도주식회사, 1862년 횡단철도- 시장확대)로 시대구분을 하고 있다.

컬럼버스의 신대륙 발견(1492년)은 선교와 금광발견 목적으로 한 모험항해로 스페인 왕실이 지명한 회계담당자가 승선했던 것이 미국 회계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정기숙, 2002, p.128). 17세기 이후 네델란드, 영국(1629년 Mayflower호로 메사츠세츠)의 신대륙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18세기 초 미국 동해안 영국식민지가 건설되었다. 미국 식민지의 형성은 전통적 유럽 문화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갖고 시작되었으며, 회계사상도 성실기장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증거가 17세기 후반 복식부기 장부들이 많이 남아있다. 18세기 말까지 미국은 개척 농업시대로 농촌사회(농업 80% 종사, 도시인구 10%)가 중심이었고, 제조업은 소규모 가족단위로 농한기에 단순 제품생산(모자, 구두, 직물, 맥주, 시계)에 그쳤으며, 일부 항구도시에서 교역 및 상업활동에 종사하였다.

1776년 독립 이후 남북전쟁까지, 무역, 상업, 제조업 발전과 개인의 부의 축적과 회사기업의 발전, 대도시화, 대기업 형성, 및 서부개척 등으로 미국의 제1차 산업혁명 시기이다. 면화생산과 교역이 1792년 2백만 파운드에서 1840년 5억 파운드(250배) 생산으로 세계교역의 75%를 차지하였다. 또한 고속도로, 철도(1830년 증기기관차 개설), 운하건설(북동지역 산업)로 교통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자본시장의 태동은 1792년 뉴욕 Wall Street Coffee House에서 비조직적이고 불규칙적 증권 매매(국채, 은행, 보험)에서 시작되었다. 1820년대 동북부 대규모 면직공업이 도약, 1825년 회사법 제정(유한책임), 1827년 12개 은행 19개 보험 운하 가스회사 등이 증권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1850년에 철도회사가 상장되었다.

남북전쟁(1861-1865년) 이후, 제2차 산업혁명기(황금기 30년)에 특히 인구가 1850년 2,500명에서 1890년 6,000만명으로 크게 증가되고 농업도 기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850년 전신산업(뉴욕-보스톤 개설), 1861 Central Pacific, 1862 Union Pacific Railroad, 1869년 5월 미대륙 횡단철도 개설로 농업, 목재, 광업 등 생산과 소비 거리단축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졌다. 19세기 말 철강공업의 발전과 기술진보는 철강(Carnegie), 석유(Rockfeller), 철도(Vanderbilt), 금융(Morgan), 화학, 기계 , 전기, 자동차, 식품 등 각 산업분야에서 대량생산과 기업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국제경쟁력 강화되면서 미국의 제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또한 1890년 전화가 일반화되는 통신발달로 미국의 자본시장은 영국을 능가하게 된다. 1886년 미국회계사협회가 창설되고, 1896년 뉴욕주 회계사법 통과로 초기 산업자본시장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회계사들의 주된 업무는 부정 오류

검증, 소송 중재, 기업합병 등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중반 상업 종사자들 중심으로 복식부기 교육이 시작되면서 부기저서가 발간되었다. 19세기 초 대학에서 회계교육이 시작되면서 표준화된 교과서가 발간되었다. 1814년 J. Benett의 "The American System of Practical Book-Keeping"은 1862년까지 41판이나 출판되어 강의교재로 사용되었다. 1830년 최초 회계학교가 뉴욕에서 설립되었고, 1851년 루지아나대학, 1868년 일리노이대, 1900년 뉴욕대 등 회계교육이 대학에서 널리 교육되었다.

19세기 후반 회계실무를 이론적으로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회계이론을 탄생시키고 통일된 회계시스템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C. E. Sprague가 1880년 발표한 논문(The Algebra of Accounts)으로 회계방정식을 논리적 설명한 것이 오늘날 회계이론이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정기숙, 2002).

M. Weber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1904년 미국을 여행하면서 활력적 미국의 자본주의 정신(근면, 창의성, 합리주의)을 보고 저술하였다. 그는 초기 미국 이주자들의 청교도정신에 의한 새로운 국가건설에 대한 정열과 초기 서구 자본주의정신을 미국에서 경험하고 서구의 근대자본주의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고 한다. 미국의 회계출발도 이러한 프로테스탄트정신에 의한 성실기장의 회계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의 회계사상의 원천은 이주자들이 청교도정신에 의한 깨끗한 부를 형성하려는 윤리의식, Protestant 의식에 의한 일상생활에서 근면 절약 시간의 합리적 사용 등 기록(부기)의 중요성, 성실한 회계기록(지도자들의 수범 워싱턴, 록펠러 등), 필요한 시기 진보주의에 의한 개혁운동 등으로 요약된다(정기숙, 2002, p.189).

Ⅲ. 현대회계 탄생의 역사적 배경

1929년 경제대공황은 현대회계를 출현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경제공황으로 뉴욕 증권시장이 붕괴되고, 새로운 자본시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증권관계법이 제정되면서 회계원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30년대부터 회계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SEC, AICPA, AAA 등 관련기관들의 노력(법규, 규정, 공보, 보고서 등)이 회계사고, 회계이론, 회계제도 및 실무 측면에서 현대회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회계실무의 지침이 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이들 규정에 의해 수립되었다. 1936년 미국공인회계사의 회계절차위원회(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는 회계기준 수립을 위한 공식적인 첫 조직이다.

따라서 현대회계의 탄생은 경제공황 이후 자본시장의 토대가 되는 회계원칙의 필요성에 의해 비롯되었다. 회계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로 회계절차위원회가 조직된 배경으로 1900년대 초 미국경제 및 회계실무의 이해가 필요하다.

3.1. 1900년대 초 미국경제와 회계실무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 이후 1920년대 미국은 세계적 시장확대와 더불어 자동차, 건설, 철강, 석유제품 등 산업이 대량생산체제가 확대되고, 생산능률의 향상, 생산기술, 높은 이윤, 고용 증대 등 큰 호황을 맞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재무보고에 대한 주요 정보이용자는 이전까지 중시되지 않았던 일반투자가로 변화되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전쟁채(Liverty Bond) 상환으로 1920년대 미국의 증권시장이 대중화되면서 제1차 투자 붐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경제호황이 증권시장에 반영되어 증권투자의 대중화가 가속화되고, 기업특성이 개인에서 사회화되는 새로운 변화에 회계는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였다(Evans, 2003, p.9).

재무보고에 대한 규제가 있기 전, 기업의 재무보고는 소유자와 채권자 및 은행을 위한 내부회계정책에 의해 회계실무가 행하여 졌다. 이 시기에 기업의 자금조달은 일반투자가보다 외부 채권자와 은행에 의해 공급되고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회계기록 및 보고는 일반투자가를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고, 경영자와 투자가가 및 은행을 위해 작성되었다. 은행 및 투자가는 일차적으로 현금흐름과 유동성 및 채무상환능력에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기업회계실무는 기업간 비교가능성보다 특정 기업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강조되는 회계정보 특성을 갖고 있었다.

1900년 이전 영국의 회사법은 감사필 재무제표를 요구함으로써 투자가, 채권자 및 일반투자가를 보호하려고 하였던 유럽 제국의 회사법에 기초를 둔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선구적 역할을 한 통일회계법전에서 회계장부 및 회계방법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영국보다 앞선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공표 재무자료는 경영자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이정호, 1985, p.386).

1900년 이후 기업의 경제적 역할이 커지고 주주수의 급격한 증가로, 경영자의 기업비밀주의는 반사회적 사고로 비판을 받게 되고, 일반투자가에 대한 재무공시를 요구하는 기운이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대부분 기업들은 재무공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재무보고의 표준화 및 감사 등 회계실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1920년대 미국경제의 호황에 따른 기업의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회계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기업은 사적 조직에서 사회적 조직으로 변화했지만, 그러한 기업환경 변화에 회계정보는 사적 도구(경영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통일된 회계제도 및 기준수립 기관이 없는 자유방임 시대였다. Littleton & Zimmerman은 1920년대의 회계를 자유회계(Freedom Accounting)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회계실무는 다양한 방법이 인정 되었으며, 회계실무에서 가장 오용됐던 중요한 분야는 잉여금 조작에 대한 회계실무로 고정자산재평가와 무액면주식제도이다(이정호, 1991, p.96).

자유회계실무시대의 재무보고는 주식회사의 법률적 규제운용을 최소화하는 대체적 회계방법이 많아 비교가능성을 크게 해쳤다. 일반적으로 독점대기업은 공표이익을 축소 계상하여 배당억제 및 탈세를 합리화하고, 비독점 중소기업들은 주가유지를 위해 이익을 확대 계상하는 회계방법을 사용하였다.

3.2. 현대회계의 탄생과 발전

3.2.1. 경제대공황과 증권관계법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산업시설이 파괴되면서 1920년대 미국경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증권시장도 큰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회사이익 증대에 의한 배당금의 큰 증가, 주식구매자극(브로커 자금대여, 신용거래 1929년 160억 시가총액 18%), 전쟁채(Liverty Bond) 상환으로 일반투자가들의 투자기회 제공 등으로 제1차 투자 붐이 조성되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의 전후복구 및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대내외적 상황(과잉생산, 할부거래 현금거래의 13% 수준)이 크게 악화되었고, 자유회계시대의 경영자의 회계조작으로 인한 재무정보의 신뢰성 부재로 일반투자가들을 현혹시키는 투기적 상황을 맞게 됐다. 주가는 1924년 이후 기업순이익 증가보다 3배 이상 올랐다. 이러한 투기적 악영향을 우려해 1929년 초 미연방준비은행은 투기거래 신용대여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결국 이러한 거품과 투기붐은 1929년 10/24 암흑의 목요일에 세계증시 사상 최악의 폭락으로 이어졌다. 1930년 증시자금이 1/3로 줄었고, 실업률은 1%에서 25%(2,600만)로 증가했으며, 주가는 1929년 고점 기준으로 1932년에 90% 이상 폭락하였다(이정호, 1991, p.102; 강남규, 2001, p.288).

1932년 Roosevelt 당선 시 미연방의회 상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증권거래방향은 상황적

판단을 피하고 투자상 판단은 투자가에 일임하며, 정부는 신뢰성 있는 회계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루스벨트 취임 후 투자가 보호를 위해 증권매매 규제 및 감독을 위해 증권제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유방임주의에서 정부간섭(복지, 주택, 노동, 금융, 문화, 최저임금 등), 투기방지, 시세차익보다 장기투자이익 보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조사 공개하고 작전단과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외부자 불공정 대우, 탈세, 회계조작 등 규제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일반투자가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과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이 제정되었다. 이 증권관계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탄생되고, 증권시장과 관련된 법제, 집행 및 감독 권한을 갖고 현대 자본시장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 증권관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각 주의 주법으로 증권업자 등 투자기관의 사기규제를 위한 증권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1911년 캔자스주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어 각 주로 파급되어 1921년 38주가 주법으로 운영되었다(이정호, 1991, p.104).

3.2.2. 회계원칙(기준)의 생성 배경

1930년 이전에는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인 통일된 회계원칙이 존재 않아 회계처리 및 보고의 자의성과 회계감사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경제공황 이후 주식회사는 사회적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재무정보는 산업민주주의에 부합하도록 공시주의를 전제로 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다. 증권거래법 제정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가 창설되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죠셉 케네디를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SEC가 회계원칙 제정에 대한 법적 권한을 미국공인회계사회(AIA)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1936년 회계절차위원회(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가 창설되었다. 1938년 회계연속통첩(Accounting Series Release) No.4에 의해 실질적 권위를 인정받고, CAP는 첫 보고서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를 1939년부터 공표하기 시작하였다.

CAP가 창설되기 이전 초기의 회계기준이라 할 수 있는 통일회계원칙과 증권관계법 제정 이전 AIA와 뉴욕증권거래소(NYSE)와의 협력에 의한 권고했던 왕복문서는 성문화된 회계원칙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 초기의 회계기준(배경)

초기의 회계기준은 미국공인회계사회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oard), 연방통

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협력으로 재무보고 개선을 위한 회계규정을 발표된 것으로 통일회계(Uniform Accounting)이다.

1917년 FTC 요청으로 미국공인회계사회가 재무제표 작성을 표준화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Uniform Accounting 명칭으로 FRB의 공보로 공간하여, 신용목적으로 은행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작성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1919년 "대차대조표 작성법"(신용목적), 1929년 "재무제표 검증", 1936년 "공인회계사에 의한 재무제표 조사"(주주에 대한 보고서 강조)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에서 회계사고 및 목적의 변화(정보이용자는 채권자에서 일반투자가로, 재무보고서는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제표로 변화)와 회계실무에서 회계원칙, 계속성, 완전공시, 회계감사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나. AIA와 NYSE와의 협력

1929년 경제공황으로 증권시장이 붕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투자가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미국공인회계사회에 회계원칙 개발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공인회계사회는 증권거래협력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Corporation with Securities Exchange)를 설치하여, 1932년 뉴욕증권거래소에 회계5원칙을 권고하였다.

이 회계원칙은 미실현이익 계상금지(실현주의), 자본잉여금 구분, 연결잉여금 대기 금지, 자기주식 자산허용과 배당금지, 내부이해관계자(임원, 종업원)의 채권 구분표시의 회계5원칙으로, 나중에 증여(교환)자본과 자산평가원칙이 추가되어 회계6원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원칙은 광범한 회계원칙으로 투자가 보호 및 순이익 결정요소로 중요한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회계원칙을 성문화하려는 첫 시도로 성문화된 회계원칙의 효시이다. 둘째, 회계원칙 리스트를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문구로 사용했는데 나중에 이는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로 쓰이게 되었다(Evans, 2003, p.10). 그 외에도 증권거래협력특별위원회는 표준단문식 감사보고서를 고안하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제의하고 승인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남상오, 1979, p.143).

3.2.3. 회계원칙(기준)의 발전

현대회계는 기업회계실무의 지침이 되는 통일된 회계원칙이 필요성에 의해 탄생되었다. 현재까지 회계원칙 수립을 위한 회계이론의 정립과 회계실무의 지침이 되는 회계원칙 정립에 대한 회계전문기관의 노력에 의해 현대회계가 발전되어 온 것이다. 초기 회계원칙의 정

립은 미국공인회계사회와 뉴욕증권거래소가 의회보다 직접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회계원칙 수립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공인회계사회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다.

1936년 이전까지 미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용어의 통일, 재무제표작성의 표준화, 회계정보의 공개, 감사문제 등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여 왔다. 이러한 주요 활동을 했던 특별위원회의 기구로는 1910년 설립된 회계용어 공식화하기 위한 용어위원회, 1917년 Uniform Accounting, 뉴욕증권거래소와 협력위원회의 활동(1932-34년; Audits of Corporate Accounts), 1933년 회계원칙개발특별위원회 등이 있다.

증권관계법이 제정되면서 회계원칙개발을 위해, 1933년 회계원칙개발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활동성과는 없었고, 그 역할은 1936년 설치된 회계절차위원회(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로 대체되었다. SEC가 회계원칙 제정 권한을 미국공인회계사회에 위임함에 따라 1936년 회계절차위원회(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가 창설되었다. 회계절차위원회는 설치 초기에 그 역할이 모호하여 미온적으로 활동이 미약하였다. 이에 따라 1938년 SEC가 ASR No.4에서 실질적 권한 인정(substantial authoritative support)한다는 공표와 압력행사로 회계절차위원회는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회계절차위원회의 조직은 8명의 위원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21명으로 확대되었다. 모든 위원들은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들로 비상임 파트타임으로 활동하였고 소규모 스텝과 파트타임 연구부만이 있었다. 모든 위원들은 투자가 및 채권자, 기업, 학계를 제외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회 입장을 취하는 편견을 갖고 활동을 하였다(Evans, 2003, p.13).

그리고 회계절차위원회는 회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계이론(포괄적 회계원칙) 개발을 목적으로 5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단기적 개별적인 특수 문제 해결을 강조하다 보니 이론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CAP는 21년 동안 사적 기관으로 회계실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식회계기준 수립기구로 큰 역할을 했다. 1939년 ARB No.1 발행을 시작으로 No.51(1959)까지 발표되었다. 그러나 CAP의 회계기준은 이론적 토대가 없었고, 위원들의 기준수립 과정에서 재무제표작성자(기업) 및 정보이용자가 배제되었으며, 의사결정도 너무 느렸으며 특수 문제에 대한 단기적 처방에 의존하는 등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SEC와 여러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익결정에서 당기업적주의를 선호하는 CAP에 대해 포괄주의를 주장하는 SEC와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재고자산평가, 감가상각, 소득세배분, 연구개발비, 영업권 등 회계처리방법의 다양성(diversity, flexibility)으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결여되는

문제들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미국의 증권시장은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제2차 투자 붐이 일었다. 이러한 투자 붐에 의해 일반투자가는 1950년대 초에 비해 1960년대 초는 2배 이상 증가(50년대 초 7백만, 60년대 초 2천만)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천으로 재무회계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1958년 미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원칙심의위원회(Accounting Principle Board)를 창설하여 회계기준 수립기구를 재편하였다. 1973년 APB가 종언을 고하고, 미국공인회계사회에서 독립된 새로운 사적 기구로 재무회계기준심의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가 탄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현대회계를 주도해 온 미국에서 회계의 국제화를 지향해나가는 추세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로 그 주도권이 바뀌었다.

Ⅳ. 결 론

현대회계의 탄생의 먼 근원은 이태리 복식부기의 출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류 역사상 복식부기 출현 이전 5000년 동안의 단식부기에 의한 인류의 성과에 비해 복식부기 출현 이후 500년 동안의 회계발전 및 경제사회 발전은 눈부신 혁명적 성과를 이루었다. 근대자본주의의 성립과 발전과정에서 회계는 자본주의 발전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큰 지렛대 역할을 하여 왔다. 현대회계 및 현대경제사회는 근대회계 및 경제사회의 발전이 그 토대가 되었고, 근대회계 및 근대경제사회의 발전은 중세회계 및 중세 경제사회의 발전이 중요한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13세기 경 출현한 복식부기가 탄생되기까지 고대사회 및 중세 유럽의 회계는 단식부기 형태로 통일된 회계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다. 정부나 종교단체 등의 수지회계는 재산관리 및 수지보고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대리인회계 형태이다. 이러한 대리인회계는 단식부기 형태이지만, 중세에서 근대까지 통일된 회계시스템으로 발전시켜온 영국 장원제도의 장원회계가 주목할 만한 회계로 볼 수 있다.

복식부기의 출현 이후 중세 이탈리아의 상업발전은 15-16세기 신대륙 대발견시대에 신항로개척과 더불어 상업주도권이 지중해 연안에서 북대서양 연안 서유럽과 북유럽국가로 이행되면서 상품시장이 더욱 확대되어 유럽의 상업혁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업혁명에 따라 상업조직은 개인 및 조합기업 형태에서 주식회사제도로 발전하게 된다. 15세기 말 이

탈리아 상업도시가 쇠퇴하고 무역중심지 이동과 더불어 파치올리 부기서가 유럽 전역으로 번역 전파되면서 대리인회계가 복식부기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유럽의 상업혁명과정에서 근대자본주의가 성립되었다. M. Weber에 의하면, 근대자본주의의 성립 요건 가운데 하나인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경영은 자본계산에 의한 경영을 말하고, 그것은 복식부기 수단으로 수익성을 계산하고 대차대조표 작성에 의하여 경영을 통제할 수 있는 영리경영을 말한다고 하였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19세기에 유럽 제국 및 미국으로 확대되면서 근대사회로 발전시킨 혁명적 사건이다. 또한 산업혁명은 회계 역시 상업부기에서 공업부기가 통합된 근대회계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산업발전과정에서 주식회사제도가 제도화됨에 따라 자산평가(거액 고정자산 사용)와 이익계산이 더욱 중요하게 됨은 물론 일반투자가에 대한 기간보고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Weber는 자본주의 발전의 외적 요건을 상업화와 주식회사를 들고 있다. Weber는 자본주의 출현한 곳 반드시 보다 정확한 복식부기가 따른다고 하였다. 산업혁명은 근대자본주의 발달을 더욱 촉진시켰고 복식부기의 발달을 가져왔다. 복식부기에 의해 자본과 이익 식별 용이하게 하고 경제발전을 촉진시켰다. 또한 주식회사제도의 제도화와 더불어 현대 금융자본주의 사회경제제도의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산업혁명에 의한 근대회계 발전기간은 근대자본주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현대회계를 잉태한 성숙기였다.

1929년 경제대공황은 현대회계를 출현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경제공황으로 뉴욕 증권시장이 붕괴되고, 새로운 자본시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증권관계법이 제정되면서 회계원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대회계의 탄생은 공황 이후 자본시장의 토대가 되는 회계원칙의 필요성에 의해 비롯되었다. 1930년대부터 회계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SEC, AICPA, AAA 등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회계사고, 회계이론, 회계제도 및 실무 측면에서 현대회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회계실무의 지침이 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수립을 위한 공식적인 첫 조직은 1936년 미국공인회계사의 회계절차위원회이다. 1958년 미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원칙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회계기준 수립기구를 재편하였다. 1973년 독립된 새로운 사적 기구로 재무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탄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현대회계를 주도해 온 미국에서 2000년대 이후 회계의 국제화를 지향해나가는 추세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로 그 주도권이 바뀌고, 앞으로 국제회계기준 정립과정과 그 성패가 미래의 회계발전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아 크게 주목이 된다.

참고문헌

강남규 역(2001), 금융투기의 역사, 국일증권경제연구소
고승희(2006), 회계사 회계사상사, 수서원
김선영 역(2010), 금융의 지배. 민음사
남상오(1979), 회계이론, 일신사
민석홍 나종일(2009), 서양문화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배영수(2010), 서양사강의, 한울아카데미
양동휴(1999), 미국경제사탐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윤병욱(1966), 구미 경영학의 발전과 이론, 광명인쇄공사
이언규 역(2008), 서양 중세사, 집문당
이정호 역(1985), 회계사상사, 경문사
이정호(1991), 현대회계이론, 경문사
이정호(2000), 회계사연구, 경문사
정안기 여인만 역((2010), 국제경영사, 한울아카데미
조기준 역(1982), 사회경제사, 삼성출판사
정기숙, 박해근, 이중희(2002), 회계사상과 회계기준의 발전, 경문사
Evans(2003), Accounting Theory, Thomson